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예배시간: 오전 10시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성도의 노래
2. 내 영혼이 은총입어

기 도 다같이

- 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가 되게 하소서.
- ② 만족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소서.
- ③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④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교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소서.
- 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선교 사역이 재개되게 하소서.
- ⑥ 하반기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 p.5)

설 교 설교자
“복된 자(1)”

현 금 다같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수요일에배 Wedne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복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이 사회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인간 내면적인 문제에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난’이라는 용어들을 쭉 살펴보면 말 그대로 물질이 부족하거나 끼니를 때울 수 없는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한없이 겸비해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 “너 곤고한 자여”라고 부르시는데, 이 말은 ‘너 가난한 자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 부음을 받은 여호와와 종에 의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이 이 일을 위해 오신 여호와와 종이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천국을 기뻐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시 67:1). 그분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시 67:2).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천국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Prayer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소서.
3.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Spišská Nová Ves 교회 - Martin Kačur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23일 (주일)	고난	1.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소서. 2. 장차 닥치게 될 불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소서.
24일 (월)	인내	1. 하나님을 위해 현재의 악을 참고 견디게 하소서. 2.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역경을 인내하게 하소서.
25일 (화)	교회	1. 사회와 동떨어진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하소서. 2. 사회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실천하게 하소서.
26일 (수)	코로나 19	1. 한국의 2차 재유행이 급격히 확산되지 않게 하소서. 2.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27일 (목)	슬로박	1. 영적으로 침체된 슬로바키아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2. 슬로바키아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에 강건하게 하소서.
28일 (금)	기쁨	1. 연기처럼 사라질 물질의 부유함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2. 헛된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쾌락을 좇지 않게 하소서.
29일 (토)	교회	1. 하반기부터 모임이 시작되도록 상황들이 예비되게 하소서. 2.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이 조별모임을 통해 활성화되게 하소서.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8월 23일(주일)	사 32장 1 - 20절
8월 24일(월)	사 33장 1 - 24절
8월 25일(화)	사 34장 1 - 17절
8월 26일(수)	사 35장 1 - 10절
8월 27일(목)	사 36장 1 - 22절
8월 28일(금)	사 37장 1 - 20절
8월 29일(토)	사 37장 21 - 38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7,8월 방학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내
큐티나눔모임	7,8월 방학
수요기도회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 소독, ② 마스크 착용. ③ 거리유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예배**
시작일시: 9월 6일(주일) 오전 9시
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② 간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어린이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후 성경공부**
내용: 하나님의 계시
시작일시: 9월 6일(주일) 오후 1시 30분
※ 8월 30일(주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화요 성경공부**
내용: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 탐구
시작일시: 9월 8일(화) 오전 10시
※ 8월 30일(주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수요기도회**
시작일시: 9월 9일(수) 저녁 7시

8월 헌금 위원	
1부 예배	김택근, 박종석
2부 예배	김영수, 정세영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8월 23일
(34주)

KÓREJSKÝ ZBOR CÍRKVI BRATSKÉ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작: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